

젊음의 패기와 기계에 대한 사랑으로 포장산업에 도전

“한국포장협회 …… 외국업체와의 연결고리”



회사 연혁

- 1992년 7월 G.S.C 설립
- 1993년 5월 한국기계공업진흥회 가입
- 1993년 10월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으로
공장 이전
- 1995년 2월 시화공단으로 공장 이전

지난 2월 15일 무역 클럽에서 “기계산업의 수출산업화 조기 실현”이란 주제로 통상산업부 차관 초청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기계 산업은 모든 산업으로 하여금 고도의 우회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산업생산기반 설비로써 각 산업의 성장 발전과 구조 고도화에 기여하여 국가 경쟁 기반을 구축하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기계산업분야에서 포장기계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한국의 경제력 성장에 뒷받침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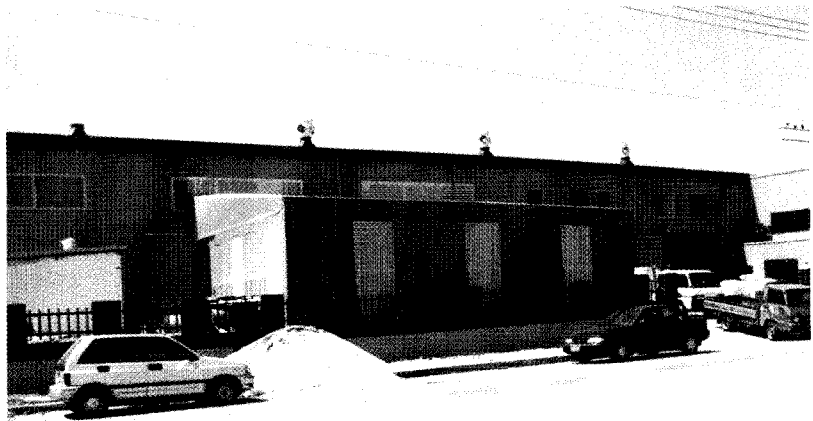
바로 ‘포장산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포장기계생산업체, G.S.C(Gravure Supply Company)를 탐방했다.

작은 공장의 큰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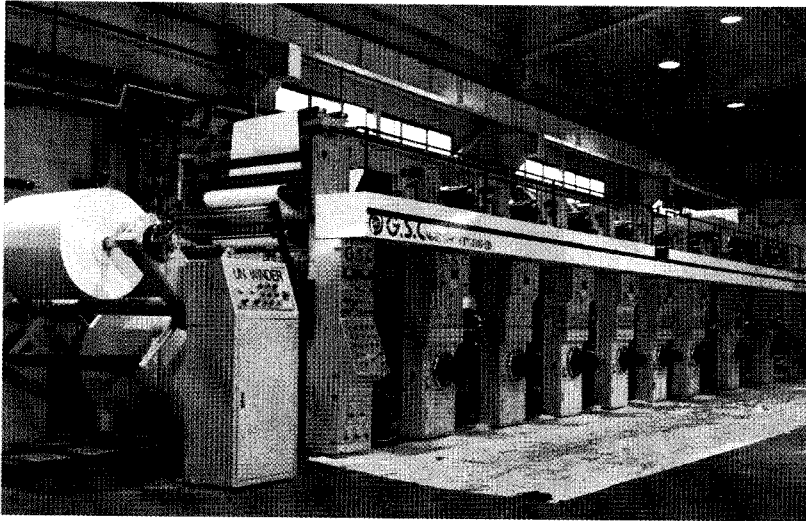
이상한 일을 보았다. 아니 당연한 모습이었으리라.

사장 또한 작업복과 기름진 장갑을 끼고 기계와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왠지 모를 감정이 일었다. 천여개 업체들이 준비하게 늘어선 시화공단은 한국경제의 산실이라 할만큼 역동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다. 바로 여기에 G.S.C(사장 황주생)가 위치해 있었다.

“현실에 충실하며 미래를 개척하는 신기술인이 되자”라는 문장은 사장 이하 전직원을 포장기계쟁이로 만들어 놓았다. G.S.C는 작았다. 그러나 기계는 거대했다. 타계열 회사에서 5년동안 A/S로 근무한 황주



▶ G.S.C 전경



▲ G.S.C에서 생산·납품되는 종이·필름 검용 8도 그라비아 인쇄기

생 사장은 기계의 남다른 기술개발과 보완으로 독창적인 기계 제작에 몰두하다가 1992년에 G.S.C를 설립했다. 이렇게 설립된 G.S.C는 각고의 노고로 시화공단에 부지를 마련, 일반적인 부품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지금은 주문 생산식으로 여러 종류의 인쇄기를 개발, 제작하고 있으며 중국수출과 해외 몇 나라와 교섭중에 있다”며 “현실에 충실하며 미래를 개척하는 신기술인이 되자”라는 사훈은 전직원이 우수 포장기계연구에 심혈을 다하게끔 하고 있다”고 황주생 사장은 밝혔다.

소비자의 견해와 기계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며 선진된 기술개발연구, 검토와 구매자의 가격조건에 만족할 수 있는 신개발 창출에 주력하고 있는 G.S.C는 작년 매출액이 30억원 을 달했다.

이 회사의 조직은 타사의 조직구성만 보다는 좀더 타이트하고 빠른 업무진행을 위해 팀워크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모든 업무진행을 팀장을 주축으로 하고 20대로 이루어

진 팀원들의 남다른 진취력과 의욕적인 젊음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부서의 정예화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업무진행의 가속화를 위해 보고체계의 신속성을 이루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사장님과 1:1 대화를 함으로써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황주생 사장의 입장이다.

기획실에서는 기계 설계, 영업 및 회사의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부에서는 총무, 경리, 자재 구매 및 외주 업체 관리를 하고 있다. G.S.C의 핵심부라 할 수 있는 생산부에서는 기계 가공 및 제관을 하는 제관부, 조립 및 AS 담당을 하고 있는 조립부, 전기, 전자 및 유틸리티를 담당하고 있는 전기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라비아 인쇄기 기계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LINWIN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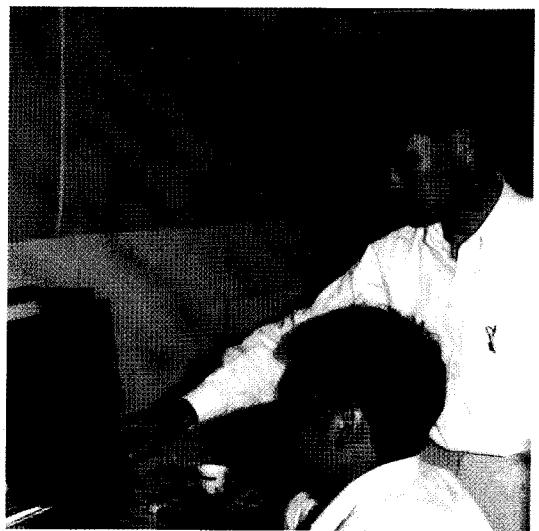
주로 중포장용이기 때문에 중량을 감안하여 견고하게 제작되었으며, 교체시간 단축을 위해 원단의 착탈이 용이하며 MONO 레일 설치 및 현장 조건에 맞춰 보조기기를 부착할 수 있다. 특히 D.C MOTOR에 의한 회생제동방식이므로 텐션 제어가 정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 AUTO SPLICER

작업의 연속성을 위해 원단의 자동급지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동원단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확한 Pre Drive를 위해 종전의 PORTENTIO METER 방식을 탈피 간단한 Beam센서에 의한 경 검출로, Arm의 각도와 관계없이 경 검출이 가능하다.

• FEEDING UNIT

D.C MOTOR에 의한 컨트롤 방식이며 회생제동 방식으로 Tension



▲ 그라비아 인쇄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부품 설계를 CAD로 구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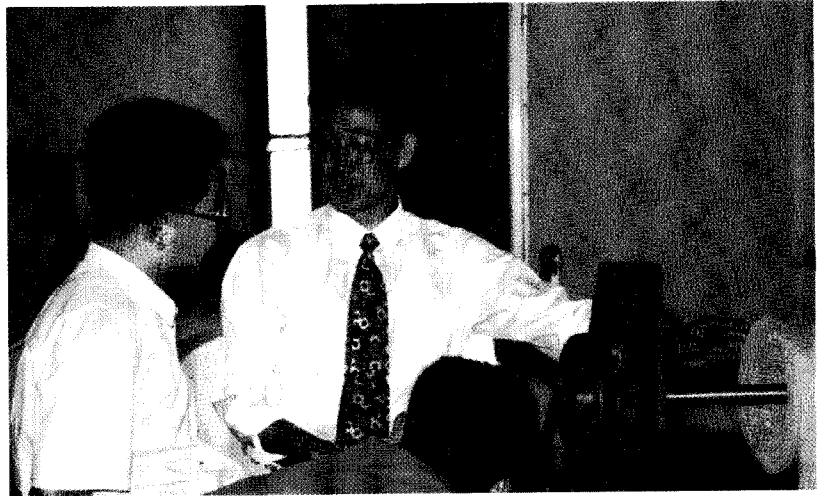
의 유지가 정확하다.

• PRINTING UNIT.

PRINTING CYLINDER의 착탈시 문제되는 교체시간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Air CYLINDER를 사용하고 Side Ley의 조작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수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인디케이터를 부착하였다. 작업장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사이드 배기 장치 및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하여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 DRYER는 급속순환 방식으로 원단의 종류에 맞게 건조 효율을 조절할 수 있으며 열원은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전기, 열풍보일러·스팀보일러, 열 매체유 등을 사용할 수가 있다. 제품을 검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요구에 따라서는 VIDEO SCANNER, WEB EYE, STROBO SCOPE 등을 부착할 수가 있고, 중앙에 MASTER 판넬을 설치하여 C.P.U 방식으로 중앙에서 모든 SYSTEM을 운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필요에 따라 엠보싱, 슬리터, SHEET CUTTER 등 주변장치들을 IN LINE 시킬 수도 있으며 현재 제작 중인 기계도 이전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국제 경쟁은 품질과 기술의 경쟁

일본의 경우 회사 규모는 작아도 설비 자동화가 잘되어 있는 것은 물론 기능 인력의 이직율이 낮아 생산 기술이 오랫동안 축적되어 지금의 일본을 있게 한 반면 한국이 포장기계산업은 다른 업종보다 열악한 작업환경과 저임금 때문에 기술인력을 확보할 수 없어 생산기술이 축적돼



▲ 정확한 기계납품을 위해 소비자에게 세심하게 설명하고 있는 황주생 사장

있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나름대로 G.S.C에서는 이같은 현실적 사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물로 조직인원의 젊음화, 그 속에서 계속적인 노하우 개발을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지금 우리 나라의 포장산업기계는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기계들의 교체상태라 볼 수 있지요. 국내 인쇄기업체는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국내업체끼리 경쟁적으로 운영하는 분위기인데 오히려 외국으로 시선을 돌려 주력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포장기계류 부품 공업은 자본재 산업으로서 산업구조 고도화와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핵심이 되는 산업이라 볼 수 있지요. 따라서 어떤 환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 양적 성장에서 탈피하여 질적 고도화를 추구해 나아가야만 소비자에게 만족되어지고 외국에서도 당당히 싸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부수적인 문제”라고 밝히며 “포장협회에서는 저희 같은 중소기업체를 위해서 신경

을 썼으면 합니다. 중소기업체인 경우는 해외영업능력이 없습니다. 외국의 기계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슬리터면 슬리터, 인쇄기면 인쇄기, 중포장인쇄기면 중포장인쇄기들의 업체들과 고리 역할을 하여 측면 지원이 필요합니다”라고 김대리는 강조했다. 한 달에 한번씩 회식으로 단합을 꾀하고 정기적인 야유회와 체육대회를 갖는 G.S.C!

작지만 내실 있는 G.S.C를 탐방하면서 느낀 것은 포장기계산업인이 중심이 되어 우리 포장기계의 품질과 기술 수준을 세계화해야 겠고, 지금까지의 값싼 인력이나 풍부한 자원과 같은 생산 요소의 비교 우위에 의한 경쟁은 이제 큰 의미가 없고, 품질과 기술의 절대 우위에 의한 경쟁력 확보가 유일한 생존 수단임을 생각하게 했다. ☐

(변준섭기자)

정직한 기계 생산과 납품을 위해 헌신

“기계에 많은 투자로 작년에는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GSC가 알려진 것만으로도 적자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타계열회사에서 5년간 A/S분야에 종사하던 황주생 사장은 1992년 7월 “현실에 충실하며 미래를 개척하는 신기술인이 되자”라는 힘찬 구호를 내걸고 젊은 기술인 14명과 패기와 기술을 바탕으로 G.S.C를 설립했다.

“한국의 포장기계산업이 내실 있게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도전적이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포장산업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인들은 타성에 많이 젖어 있어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G.S.C가 설립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원대학교 기계설계학과를 졸업한 후 줄곧 기계와 생활한 황주생 사장은 포장산업인들의 모습을 비판하며 자신의 신념을 밝혔다.

“포장산업에 9년동안 헌신해 오면서 줄곧 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있었지요. 바로 ‘정직한 기계 납품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하며 “저와 전직원은 기계에 대한 이익보다는 자체 공장에서 좀더 좋은 구상과 좀 더 나은 자체가 있으면 투자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자체가 기능인이다 보니 다른 업체보다 기계에 대한 변형이 빠릅니다. 일에 대한 욕심과 기계에 대한 애착심이 크다는 것이겠지요”라고 말했다.

포장산업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G.S.C가 자리잡게 된 것은 중포장에 있어 자동화기기는 전무후무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연포장기를 고안하여 개발 생산한 것이 사용자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연포장기계와 비슷하지만 무거운 중량, 많은 힘을 필요로 하므로 보완·설비하여 외형이 크면서도 작동하기에 편하게끔 설계하여 제작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어 있고, 기계 또한 그 라비아 인쇄기 수입에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업체들의 고달픈은 원자재 값은 상승하는데 그러나 제품 단가 비용은 제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외국 기계를 들여오자니 그만큼 자금이 없기도 하고요.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국산화 기계도 입시 지원금을 주면서 세율적인 혜택도 시행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기계를 팔 수 있는 경로가 확대되고, 투자 또한 자금이 없어 못했는데 투자의 폭



▲ G.S.C의 대표 황주생 사장

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폭이 넓어지지만 문제는, 기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많은 투자를 기피할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 황주생 사장은 이렇게 밝혔다.

“포장기계에 있어 후렉소기계는 유럽이 단연 앞서고 있습니다. 그라비아는 일본과 한국의 기술 수준이 동등하지만 일본의 소재의 질이 좋기 때문에...”라고 잘라 말하며 “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 후 알게 모르게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쓰레기가 줄어든다는 것은 기계의 생산량이 감소함을 의미하지만 쓰레기종량제가 포장자체를 줄어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재생포장을 환경에 저해 안되는 대체 품목으로 개발하는 추세입니다. 저희 G.S.C 사도 여기에 일조 해야 겠지요. 아울러 포장인쇄기계는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맞게 제작·개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직원들의 좋은 아이디어는 확대하여 연구하고 설계하여 설계자와의 많은 미팅을 통해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기계와 생활할 것”이라며 “지금의 동남아 분위기는 필름에서 종이쪽으로 포장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수보다는 동남아 수출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어 너무나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고 말을 마친 황주생 사장의 모습에서 지금과 같은 포장산업의 열악한 환경은 바로 젊디젊은 포장기계인들의 노력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개선 되리라 확신한다.